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8월 6일 (제91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처음은 다 힘들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처음 이태리어로 노래를 부를 때 발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피겨 요정인 김연아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스케이트를 잘 탔던 것은 아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고 힘들다.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가 요즘 설교를 잘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혹 교회를 비울 일이 있어도 안심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시대 목사가 그렇게 잘했을까? 아니다. 이시대 목사는 원래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사람이다. 오죽하면 대학원 논문 발표에 줄행랑을 쳤을까. 처음 단에 섰을 때 그는 몇 마디하고 물 한 컵 마시고, 몇 마디하고 다시 물만 들이켰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설교를 듣자면 은혜가 넘친다. 왜 그럴까? 노력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것, 달인이 되는 것은 타고 나서가 아니라 끈기와 인내, 그리고 기다림과 배움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거저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될 수 없듯 금방 이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운전을 해도 처음에는 '초보운전'이라는 딱지를 뒤에 붙이고, 차선변경 하는데 땀을 줄줄 흘리는 시절을 지나야 음악을 들으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경지에 이른다.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는 일도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뜨고 'ㄱ'을 찾고 'ㄴ'을 찾아 '가'를 치는 시절을 겪는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자판을 보지 않고도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 할 수 없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다. 그러나 노력하면서 기다리면 전문가도, 달인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반복에 반복하며 노력하라.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라

은혜의 계절이 왔다. 세상을 살다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 보약을 한재 다려먹으면 시들었던 육체가 회복된다. 산상집회는 우리 영·혼·육에 최고의 보약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하계산상집회를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에 비교하셨다. 단기간이지만 준비된 곳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하면 선수들의 실력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나흘 동안 하루 5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 시들했던 영성이 살아나고 막혔던 것들이 뿜 풀린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3주 동안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계산상집회에 꼭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첫 주 첫 시간, 목사님은 '무엇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먹 불끈 쥐고 헛기침하며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수1:5)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되라(마28:18~20)'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함께 가면 무서운 길을 가도, 힘든 길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더욱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도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습니다.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이요 그들은 양털 같이 별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51:7~8),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히13:6).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사51:12).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산상집회 기간에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깨닫고 내려가기를



2017 하계산상집회(7월 31일~8월 17일, 예수중심기도원)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성경에는 무려 366번이나 두려워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 좀 있는 사람, 지식 좀 있는 사람, 권력 좀 있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조금 힘든 상황이 오면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는 것이고, 그 관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

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담대할 수 있었고(삼상17:45),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의 훼방과 협박에도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느4:14). 저 역시 종교재판을 받았을 때나, KGB에 끌려갔을 때나, 언론에서 탄압할 때나 항상 담대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늘과 땅, 땅 아래의 것을 명령하고 호령하며 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은 둘째 날 집회에서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단에 올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직 하계산상집회가 두 주 남았다. 모두 영적 전지훈련장에 참석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영적 성숙의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성령을함입어 귀신을내어쫓으시는 목사님



찬양과기도로성령충만한기도원집회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원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9:1~20)

재앙을 막으려면 정보를 공유하라

전쟁에 이기려면 정보를 공유(共有)해야 합니다. 늘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한미(韓美)간 공조가 절실한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귀신들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 삼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정보를 공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흉악의 결박에 사로잡혀 있음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그 원인은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이요, 이는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호4:6).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지식이나 나열하고, 교양이나 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적이 없습니다만, 기독교만은 악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과 그의 추종자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적에 대한 정보와 적을 진멸할 수 있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고 지식의 말이나 신학적인 말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맘대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최고의 정보를 나누고, 최고의 무기를 지급해왔습니다. 이 무기는 북한이 엿그제 쏘아올린 미사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 없이 승리할 수 없고 연장 없이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11:11~13)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공유하기 원하신다는 뜻이고,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고 하심으로 성령이 천상천하에 가장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고전12:1).

신용사회에서 신용카드 하나면 무엇이든 가능하듯,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가진 것이요, 다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롬8:9~12). 성령을 소유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며(요16:8), 우리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요16:13),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시니 가장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도 알게 하시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고전2:10).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게 되는데 (행 1:8), 그러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고 (막9:23),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며(막16:17~18),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됩니다(요14:12).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지,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임했습니다(마3:16~17).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어진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 왜요? 이는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심이요, 그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행1:8). 그래서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다 체험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입니다(행2).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고, 연장이 없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없기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에 모인 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가만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총만함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9)고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은 기도해야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총만 가지면 뭐 합니까? 총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갑이 명품이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한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겁니다(고전4:20).

왜 성령을 상실하는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썼으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쓸 수 있는데 귀찮다고 충전하지 않으니 정작 전화해야 할 때 못 쓰듯,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밥이 되어 가난과 병과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끝난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화하신 것은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조장, 구역장이 기도하

지 않습니다. 100% 귀신의 밥이 되고 말지요. 불이 나가면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기름 없는 차가 무슨 소용이며 배터리 없는 핸드폰을 무엇하랴

성경에 쉬지 말라고 한 것은 딱 하나, 기도입니다(살전5:17).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이 임재하심의 외적 증거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입니다.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마귀의 방해공작을 받지 않습니다(고전14:2). 제 직통전화를 아는 사람은 급하면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고, 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직통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성령, 바울이 받아 능력을 행했던 그 성령, 제가 오늘날 세계를 다니며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을 여러분도 사모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또한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살전5:19),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것이 되어 불가능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공부해야 해서 못합니까? 곧 배터리가 나가겠군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심은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짐과 같아 결국 불구덩이에서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요3:5).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세상 명예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엡6:18).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갈3:3).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정보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제 21회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7월 24(월)~ 29일(토)



:: 교단소식 ::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소년이 되자’는 주제로 7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제 21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가 예년과 다른 것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의 수련회 순서가 바뀐 점이었는데, 이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방향이 늦어졌기 때문이자 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총회장 목사님의 배려였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전국에서 예수중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천여 명이 모여들었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전도하여 참석하는, 이른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천국잔치였다.

21년간의 연합수련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회예배를 인도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처음 마음을 확실히, 견고히 잡으라’(히

3:14)고 설교하신 후, 첫째 날 저녁집회에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을 찾으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달란트를 찾으라고 강권하셨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셈의 후예는 동양인이요, 함의 후예는 흑인이요, 야벳의 후예는 백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각 족속마다 다른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란단다. 우리가 각자 음식취향이 철저하게 다르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의 DNA를 주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흙을 적게 떼면 크게 할 수 없지만, 진흙을 크게 떼어내면 작게 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

든, 어떤 적성을 찾든 처음에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 주시기 때문이야.”

이후 목사님은 단 아래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시며 비전을 확립해주셨는데, 아이들은 ‘제과제빵사, 발레리나, 푸드칼럼리스트 등’ 각자 장래 꿈에 대해 담대하게 말했다.

둘째 날 저녁집회,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에 이어 내 재능을 찾은 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비결, 곧 ‘부지런함’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사랑하시고,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데 부지런한 자만이 자신의 꿈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성경인물 중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요셉

등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다. 그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분야에서 의식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집중력을 가지고 반복했더니 무의식적 습관에 부지런함이 묻어나 성공자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에게 너희를 부탁했다. 난 자신이 있다. 너희를 각 분야에 세계 최고가 되게 할 자신이 있다. 직업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분명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이다.”

2박 3일간의 ‘영성 집중기간’을 통해서 예수중심교단의 청소년들은 거듭나고 또, 성장했다. 앞으로 우리 교단의 청소년들이 이끄는 찬란한 통일 대한민국을 멋지게 기대해본다.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꿈이 있는 삶

10주간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후 간단한 간식을 사서 마사코라는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곧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과 더 하와이에 남아있을 사람들 사이의 아쉬움이 가득했지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어는 단순했지만 해가 달로 바뀔 때까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사귀 저의 친구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고 자신들이 벌고 모은 돈으로 이곳에 왔지요. 후쿠오카 공무원인 20대 중반의 레이코, 일본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20대 후반의 와카나, 30대 후반의 오사카 출신 마사코, 영어 학원 선생님이었던 40대 초반의 무즈코, 예전엔 빵집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주부인 50대 후반의 유미 사토. 그리고 한국에서 카피라이터였던 30대 초반의 저. 밤 10시가 넘어 슬슬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데 무즈코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알다시피 난

아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 왔잖아. 근데 이번에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 3년 뒤에 다시 하와이에 와서 영문과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외국 뱅키지 스쿨에서 영어를 가르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유미 사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나도 영어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하와이 대학에 입학해서 한국어나 중국어를 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보니 며칠 전엔 레이코와 마사코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엔 미국 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본토에도 가보고 싶어졌다고. 그래서 내년에 차 한대를 빌려서 국도 66번을 타고 시카고에서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볼 거라고요. 3,4~50대에게서 결혼, 돈, 집값 같은 얘기가 아닌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만인지요. 언제부턴가 꿈이나 열정이라는 단어에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계획을 듣자 무척 설레더군요. 사실

그 무렵 저도 오랫동안 드림리스트에 적어 두기만 하던,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던 한 가지 꿈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고 마음을 먹은 터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었지요. 꿈으로 반짝반짝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다들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려 하와이에 왔고, 그 용기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꿈이 있는 곳에 노력이 깃든다고요. 먼저 꿈을 꾸어야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중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처럼 나이가 적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건, 한나처럼 개인적인 꿈이건, 느헤미야처럼 대의적인 꿈이건, 삭개오처럼 소박한 꿈이건, 모세처럼 위대한 꿈이건, 모두 꿈을 꾸며 살아갔지요. 그 성경의 기록들이 그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실재했던 사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건 어렵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편리하게 내려갔다가 안전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는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이초석 목사님과 로버트 레드포드

중학교 시절,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보고 난 후, 하얀 양복의 잘생긴 이방 배우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청춘의 시절을 온통 로버트 레드포드에 열광하면서 살았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면서 갖고 있던 소망 한 가지는 매년 새해, 미국의 유타주에서 개최되는 선댄스 영화제를 꼭 가보는 것이었다. 그곳에 가면 일흔이 훨씬 넘은 노구의 몸으로 말을 타는 로버트 레드포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은 한 가득이지만 수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다. 그 분과 함께 말을 타려고 몇 해 전에는 말 타는 것까지 배웠는데 삶의 팍팍함은 새해의 그 짧은 며칠도 나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다. 삼십 여 년 전에 하얀 양복을 입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귀신을 쫓는 영상을 본 후, <위대한 개츠비>의 로버트 레드포드를 만나고 싶었던 것 이상으로 강렬하게 가슴이 설레었다. 이초석 목사님을 뵈

고 싶다는 생각이 찢히게 들었다. 간절한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목사님을 뵈던 그날의 감격은 로버트 레드포드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청춘의 시절, 가슴 설레게 했던 배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감동시켜주셨던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구름 안경을 끼고 설교를 하셨던 그 날은 수년 전, 중후한 노년의 모습으로 <스파이 게임>과 <ラスト 캐슬>을 통해서 마음을 일렁이게 했던 배우의 모습과 교차되었다. 세계를 감동시킨 명배우가 로버트 레드포드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성령과 은혜의 물결로 흔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너무 소중해서 가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복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미국의 로버트 레드포드는 평생을 두고

만나기를 사모해도 만날 수 없지만, 하늘나라 스타인 우리 목사님은 가까이서 늘 지켜볼 수 있고 천국에서도 늘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설렘으로 다가온다. 이제는 새해마다 미국 유타주를 그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늘도 천성을 향한 소망을 가슴에 묻고 최선을 다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목사님, 당신의 가슴 저리는 사랑을 가슴에 묻고 천성길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영혼의 빛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39:7).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내 이름값

세익스피어의 작품 ‘오텔로’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며, 또 살아가는 이유와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늘 아버지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라며 호통을 치시고, 또 어떤 일을 잘 해나가면 “뉘 집 딸인지 이름값은 한다.” 라며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혁혁한 공을 세워 영원히 기억되는 많은 이름들을 성경을 통해 자랑하십니다. 대홍수로부터 인류를 보전한 노아, 믿음의 조상과 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 심한 기근에서 동족을 구한 요셉,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모세, 부강한 통일 국가를 세운 다윗, 태평성대를 이룬 지혜의 왕 솔로몬 등 그 이름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도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마 26:13).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보배로운 이름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빌2:9)시며, 이름 중에 가장 복된 이름은 ‘그리스도인’(행 11:26)이라는 이름일 겁니다.

우리는 이 명칭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주의 일을 하면서 “차라리 그 이름표만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일.” 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불리는가보다 불리는 이름값을 하고 사느냐’입니다.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열심을 내고 이름값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하계 산상집회

일시 : 7월 31(월)~8월 17일(목)
장소 :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 02-533-9191